

경제성장 발달에 따른 혼례비용의 변화

The Trend of the Marital Cost according to the Economic Growth

한양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김정빈

석사 강은주

Dept. of Home Management Hanyang University

Prof. : Jeong Bin, Im

Master : Eun Ju, Kang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혼인예식에 따른 비용의 변천 | V. 결론 및 제언 |
| III.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much the cost of marriage ceremony has increased according to the economic growth.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age expenditures and other comparison variables such as per capital GNP, monthly income, consumer price index was particularly examined. All the money values were adjusted by consumer price index. Data from the Central Committee for Promotion of Saving were used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follow.

First, nominal and actual total outlay of marriage ceremony has continuously increased. Total marriage ceremony cost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housing price so that bridegroom's outlay were greater than that of bride's one since bridegroom was more likely to have the responsibility for the price of new couple's house.

Second, it was found that increased percentage rate of marriage ceremony cost was greater than that of national economic growth. The total marriage expenditure was about 10 times as much per capital income in 1990.

Third, it was revealed that housing cost increased three times from 1990 to 1995, and marriage ceremony expense was accordingly increased twice during the

same periods. Such trends tend to increase continuously.

Last, the marriage cost percentage to monthly income called marriage expenditure share increased by 1990 and then decreased. Such a decreasing trend can be explained by the increased amount of income partly due to the higher wage rate compared to other conditions since 1990.

1. 서론

혼인이란 성인 남녀가 사회적으로 일정한 의식을 거쳐 부부가 되는 것이고, 혼례는 그 시대의 도덕과 의식·관습의 총체인 동시에 사회적·법률적 제한을 받는 제도로서 인간 생활에서 필요한 문화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이정우, 1997), 한 사회의 기초적 구성 단위라 할 수 있는 가족은 혼인을 통하여 형성된다. 또한 모든 사회가 저마다 다양한 형태로 혼인에 대한 법적 승인이나 규제를 설치하여 두고 있는 것도 혼인이 지니는 사회적 의미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혼인 제도는 당해 사회가 지닌 특성을 적나라하게 반영하는 핵심적인 사회제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해방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겪었으며, 이 과정에서 서구 사회에서는 200년 이상 소요된 공업화를 우리 나라는 단지 30여년만에 이룩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도 나타났다. 특히 근대화 이후 여러 나라의 문화적 유입과 함께 1960년부터 시작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실시 이후 한국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 및 자본주의적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제반 환경의 영향으로 가족 형태는 핵가족화가 가속화되었으며, 생활 양식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급격한 경제 성장, 소득 수준의 향상, 개방화 등으로 1980년대 말에는 도시 근로자 가계의 소비지출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소득에 대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고(류재술, 1992), 대중매체의 발달과 특수 계층의 과소비 현상이 일반 도시 가정에까지 파급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혼례문화에도 영향을 미쳐 전통적

이고 한국적인 혼례문화의 중요성을 약화시키고, 과시적이고 경쟁적인 혼례문화를 만연시키면서 과소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이기적이고 낭비적인 혼례문화로 변질시켰다. 즉 일부 계층의 호화 혼수와 호화 혼인식은 혼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저버리고 물질적인 과시로 혼례를 치루려 함으로써 혼례문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야기시키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혼례관행의 급격한 비용 증가는 많은 가계에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안겨 주었다. 한 자녀당 혼수마련 준비 기간이 약 5년 걸린다고하며, 여러연구에서 혼례비용의 부담이 가계에 상당한 심리적·경제적으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에 혼례 비용에 관한 연구는 미시적인 측면에서 혼례비용의 액수를 파악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거시적인 측면에서 혼례비용의 증가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혼례문화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의 지표라 할 수 있는 1인당 국민 총생산, 도시 근로자 가계의 월평균 소득, 소비자 물가지수와 혼례비용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과소비 지출을 야기시키는 혼례비용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동시에 혼인 전이 시기의 남녀에게도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가정의 경제생활에 안정과 심리적 부담감을 줄이는데도 기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경제 성장에 따른 총혼례비용과 혼례비용의 변화를 살펴본다.
2. 1인당 국민총생산 대한 혼례비용의 변화를 살펴본다.
3. 물가지수를 적용한 혼례비용의 변화를 살펴본다.
4. 도시 근로자 가계 월평균 소득에 대한 혼례비

용의 변화를 살펴 본다.

II. 혼인예식에 따른 비용의 변천

1. 조선 시대의 혼례비용

여말 선초에 관혼상제(冠婚喪祭)등 사례에 관한 예서(禮書)들이 주자학(朱子學)에 이어 파급되면서 관료계급이나 양반계층에게는 중국 혼례의 연구와 시행이 하나의 이상(理想)이 되었고 따라서 부계 계승 원칙에 따라 중국의 예서들이 제시하는 육례(六禮) 또는 사례(四禮) 등 가례의 준칙이 혼례 규범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제시된 규범은 일부 봉건 양반계층에서나 갖추어 시행되었고 민간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혼례절차를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최경숙, 1995).

가례준칙 중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대한 예물 보내기가 납징(納徵)의 禮에 해당된다. 예물 보내기의 명칭은 지방마다 달라서 경상북도에서는 송복, 물묵, 경상남도에서는 혼물, 혼수함, 봉치, 전라남도에서는 짐, 짐보내기, 제주도에서는 이마지로 칭해지며, 내용은 지방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보통 신부의 옷감, 패물, 신혼 살림살이에 쓸 옷장, 이부자리, 혼인식에 쓰이는 비용으로 구성된다(박혜인, 1988). 이는 혼인과 관련된 納幣, 納徵의 예가 혼인 성립을 위한 상징적 예물 교환의 의미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15, 16세기 이후 납폐 절차가 정착되면서 일부 상층 계층에서 납폐에 많은 물품을 쓰게 되었고, 이것이 점차 전 사회적 현상으로 되었음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명령을 내려 납폐의 수량과 품질을 등급에 따라 규정하고 그것을 위반하는 자는 처벌하고 심지어 납폐하는 날에 사람을 파견하여 실물을 검사하였다고 한다(최경숙, 1995). 그러나 신부가 대규모의 거마와 종복들은 거느리고 술과 찬거리는 비복이 이고 가며 시댁에서도 지대(支待)에 상당한 비용을 들이는 등 가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가산을 기울였다(장병인, 1993). 그에 따라 우귀급조도품(于歸及調度品)에서는 신부가 신랑집에 들어갈

때 갖고 가는 물품의 종류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다. 보통 신부의 일상 필수품, 사계절 의복, 침구 등 최소 한도로 필요한 물품에 그쳐야 하며 자신이 분수와 신랑집이 생활 정도에 맞추어 호화롭거나 과장되지 않도록 엄히 경계해야 한다고 하였다(황경애, 1994).

17세기 이후 가부장권의 강화와 함께 서류부가혼(摺留婦家婚)의 성격역시 변화되었다. 즉 조선 전기 까지 서류부가 관행은 가족 내 여성 지위의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나 조선 후기의 서류부가는 오히려 설과 추석에는 세찬(歲饌), 절찬(絶讚)을 보내고 사돈과 사위의 생일에는 정성껏 옷을 지어 보내는 등 신랑측에 대한 신부측의 부담을 과중하게 하는 측면으로 바뀌었다(박혜인, 1991). 그리고 유교의 영향으로 혼례 절차가 복잡해졌을 뿐만 아니라 거주 규정에서도 신부집에서 기거하는 시기가 단축되는 것은 처계 또는 모계의 비중이 약화되고 대신 부계적 요소가 더욱 강화된 것을 의미한다(최경숙, 1995).

2. 갑오경장 이후의 혼례비용

지식인층과 기독교인을 중심으로한 신식 혼인은 간단한 절차, 간편한 복장, 무엇보다도 적은 비용으로 혼례를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다수의 환영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1934년 조선 총독부가 발표한 <의례준칙>에 따라 일본과 서구의 혼합인 신식 혼례가 많이 보급되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본래 여가(女家)에서의 잔치가 혼인 의례의 중심을 이루었던 오랜 역사를 지닌 만큼 잔치의 중요성이 대단한 것이어서 혼례를 치르는 집을 지금도 ‘잔칫집’이라고 부르는 정도이다. 이렇듯 혈연이나 지연을 바탕으로한 공동체적 의식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혼례는 일제시대 이후 피로연이라는 용어로 바뀌게 되었다. 결국 초기의 신식혼인은 저렴한 비용으로 혼인을 올릴 수 있었으나 혼인을 가문의 결합으로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정서와 결합되면서 혼례는 점차 호화로워 졌다(동아일보, 1935. 1. 3).

〈표 1〉 혼례비용¹⁾

(단위: 만원)

연구조사원(기관)		혼례비용	
1960년대 혼례비용	박숙자 (1991)	79.9	-
	김분옥 (1970)	375	-
1970년대 혼례비용	박숙자 (1991)	266.8	男 182 女 141
	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78)	378.5	-
1980년대 혼례비용	박숙자 전반 (1991)	541.7	男 23.6 女 193
	박숙자 후반 (1991)	834	男 364 女 470
	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85)	823	男 371 女 452
	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87)	1190	男 494 女 696
	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90)	1769	男 752 女 1017
	주부교실 (1990)	-	-
			女 1057
			男 1045 女 1558
1990년대 혼례비용	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93)	2603	男 1820 女 2376
	김모란 (1994)	4196	男 1700 女 3666.6
	최경숙 (1995)	5366.6	男 1181 女 2109
	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96)	3290	男 1181 女 2109
	소비자보호원 (1997)	3679	-
1990년대 총혼례 비용	정용선 (1991)	3607.4	男 2142.8 女 1464.6
	정용선 (1992)	3996	男 2390.1 女 1605.9
	정용선 (1993)	4459.1	男 2621.1 女 1838
	정용선 (1994)	4875.5	男 2885.5 女 1990
	김모란 (1994)	9187	男 6091 女 3096
	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93)	5388.5	-
	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96)	6402	男 4065 女 2337
	소비자보호원 (1997)	7539	-
	가정생활개선진흥회 (1997)	8160	男 4990 女 3170

3. 1960년 이후의 혼례비용

한국 사회의 혼수와 예물마련 절차를 보면 외형상 전통적 절차를 따라가는 면이 없지 않으나 실제로는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볼 수 있는데 1960년대 이후의 혼례비용과 신랑의 주된 지출항목인 주택비를 포함한 총혼례비용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¹⁾

1970년대까지는 남자의 혼례비용이 여자의 혼례비용보다 더 많이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980년대 초반부터 서서히 남자보다 여자가 혼례비용으로 더 많은 비용을 소비하기 시작하여 1990년을 기점으로 남자의 혼례비용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여자의 혼례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경제개혁의 결과 부부중심의 핵가족 가구가 증가하면서 신혼가구를 위한 주택마련이 필수적이 되고, 그에 따라 주택비용은 주로 신랑측 부담으로, 지역적 풍습의 차이를 보였던 신혼 가구의 살림살이 장만은 신부측 부담으로 획일화되는 경향(김모란, 1994)을 통하여 알 수 있겠다. 즉 양가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유동성있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혼수품의 양과 질이 사회적 풍토에 따라, 혹은 상대의 의식적 요구에 맞추어 결정되고 그런 상황은 신부측에서 더욱 심각하게 경험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Ⅲ.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우리나라의 혼례문화가 외양은 서구화되면서 안으로는 고유의 혼례절차를 강조하는 경향이므로 신랑·신부를 대상으로 과다혼수의 폐습을 조장하는 부조리한 혼례관행이 만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부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 점차 일반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병폐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발전예 따라

1) 본 자료는 물가지수를 고려하지 않은 것임.

박숙자(1991), 정용선(1994)의 연구는 회상법에 의해 응답한 혼례비용이므로 기타의 연구와 비교 분석시에 이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혼례비용은 어느 정도 증가하여 왔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자료를 살펴보면, 경제성장에 따른 혼례비용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1978, 1985, 1987, 1990, 1993, 1996까지의 저축추진중앙위원회 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는 전국 대도시 및 주요도시에 거주하는 상·하 계층을 제외한 중간계층만을 선택적으로 조사하였고, 6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도시 중산층가계의 혼례비용 변화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중단연구를 위한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또한 이러한 자료를 통해 각 단계별 혼례비용의 변화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1인당 국민총생산(1인당 GNP), 소비자 물가지수, 도시 근로자가계의 월평균 소득을 경제성장의 지표로 선정하였으며, 이들 자료는 통계청 자료(1997)를 이용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자료의 분석방법은 경제성장에 따른 혼례비용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1인당 국민 총생산에 대한 총혼례비용, 1인당 국민 총생산에 대한 혼례비용, 물가지수를 적용한 총혼례비용, 도시 근로자 가계의 월평균 소득에 대한 총혼례비용, 도시 근로자 가계의 월평균 소득에 대한 주택비용, 도시 근로자 가계의 월평균 소득에 대한 혼례

비용의 실태와 비율을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연구자료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이용한 저축추진중앙위원회 조사 자료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2. 총혼례비용과 혼례비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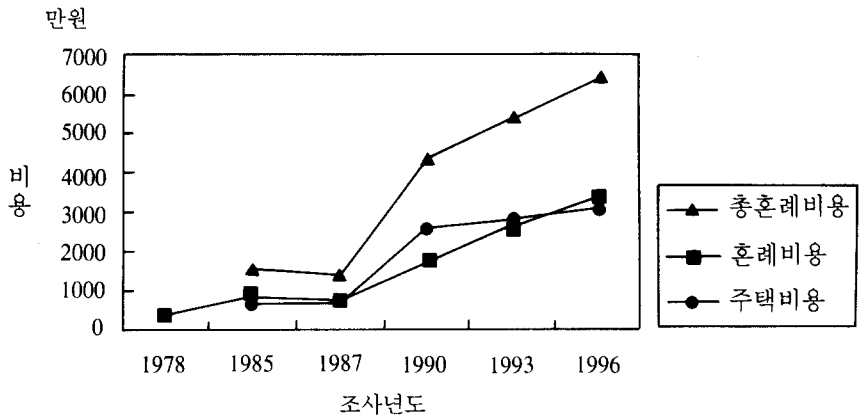
혼례비용에 관한 자료는 1978년부터 저축추진중앙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된 자료에 근거하여 단계별로 분석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1978년에 1쌍의 신혼 부부가 사용한 평균 혼례비용으로는 약 379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남자의 혼례비용은 230만원, 여자의 혼례비용은 149만원으로 남자의 혼례비용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85년 총혼례비용을 1,498만원이고, 1987년에는 1,397만원으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1990년부터 점차 증가하여 5년사이에 약 3배 증가하였다. 그리고 혼례비용은 1985년에는 823만원이었으나 1990년에는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조사시기	조사대상	서울지역 거주비율
1978	전국 10개 주요도시에 거주하는 결혼 1년 이내의 신혼남녀 782명	신혼남녀 782명중 351명으로 45%
1985	전국 12개 주요도시에 거주하는 결혼 2년 이내의 신혼남녀 486명	남자 241명중 107명으로 44.4% 여자 245명중 108명으로 44.1%
1987	전국 8개 주요도시에 거주하는 결혼3년 이내의 신혼남녀 1402명	남자 651명중 105명으로 16.1% 여자 751명중 136명으로 18.1%
1990	전국 5개 도시에 거주하는 결혼 1년 미만의 신혼남녀 1200명	남자 500명중 150명으로 50% 여자 700명중 350명으로 50%
1993	전국 6개 대도시에 거주하는 결혼 1년 미만의 신혼남녀 1068명	남자 457명의 56%이고 여자 611명의 49.7%
1996	전국 5대 광역시 및 5개 중소도시등 전국 11개 주요도시에 거주하는 결혼 1년 미만의 신혼남녀 1000명	서울과 광역시 및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4: 4: 2



〈그림 1〉 총혼례비용과 혼례비용의 비교

1,769만원으로 나타나 5년만에 약 2배의 증가하였다. 반면 1985년에는 주택비용으로 675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990년에는 2,579만원을 소비하여 5년 사이에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혼례비용보다 주택 가격이 급상승한 이유는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주택 건설 등 내수에 의존한 경기 과열이 경기호조로 이어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1993년 총혼례비용은 5,389만원이 소비되었고, 1996년에는 6,402만원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나 약 1.2배 증가하였고, 남성이 여성보다 약 0.6배 더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비용도 1993년에는 약 2,786만원에서 1996년 약 3,112만원으로 약 300만원 정도 증가하였는데, 이렇게 소폭으로 상승한 요인은 1990년 이후 국가에서 실시한 주택 정책에 따라 주택 보급률이 1990년 72.4%였으나 1995년 86.1%(통계청, 199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혼례비용의 경우, 1993년에는 2,603만원이 소비되었고, 1996년에는 3,290만원이 소비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여자의 혼례 비용이 남자의 혼례 비용보다 1990년에는 약 1.5배, 그리고 1996년에는 1.8배 더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자의 혼례비용이 남자의 혼례비용보다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혼례비용을 살펴보면 1987년에는 437

만원이었던 것이 1990년에는 1,017만원, 1996년에는 2,109만원으로 급상승하여 약 5배의 증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1987년도부터 1996년의 주택 마련 비용 관계에서도 4.8로 약 5배의 증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혼수비용 증가는 남성의 신혼 주거 마련에서 오는 반대급부적 현상이라는 점을 검증할 수 있었다. 즉 신랑·신부의 상호간 혼수 규모가 비슷하게 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노력이라 하겠다. 또한 혼인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혼주 즉 신랑·신부의 부모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우리 고유의 혼인 현실은 혼인을 집안간의 결합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혼인의 주체는 자녀가 아니라 혼주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혼례비용의 조달 방법에 있어서도 1996년 혼례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28%에 불과한 반면 부모의 사회적 관계망에 의해 생성된 축의금과 부모 부담비율을 합한 결과 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97).

3. 혼례비용과 1인당 GNP와의 관계

1인당 국민 총생산과 혼례 비용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1985년과 1987년 총혼례비용과 1인당 국민 총생산과의 관계는 각각 1인당 국민총생산의 7.7배와 5.3

〈표 3〉 혼례비용과 1인당 GNP와의 관계

(단위 : 만원, %)

	1978	1985	1987	1990	1993	1996
1인당 GNP(₩)	102	195.2	264.7	416.5	600.8	848.9
1인당 GNP(\$)	1396	2242	3218	5883	7484	10548
총혼례비용		1498	1397	4304	5389	6402
주택비용		675	650	2579	2786	3112
혼례비용	379	823	747	1769	2603	3290
총혼례비용/GNP	-	7.7	5.3	10.3	9.7	7.5
주택비용/GNP		3.5	2.5	6.2	4.6	3.7
혼례비용/GNP	3.7	4.2	2.8	4.2	4.3	3.9
男/GNP	2.2	1.9	1.2	1.8	1.7	1.4
女/GNP	1.5	2.3	1.7	2.4	2.6	2.5

출처 : 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78, 1985, 1987, 1990, 1993, 1996년 자료임.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혼례비용으로 소비하여 약간 감소하였으나, 1990년에는 다시 10.3배로 나타나 3년 사이에 약 2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우리 나라 실제 경제 성장 속도보다 혼례비용 및 주택비가 더 급격히 상승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특히 1987년에서 1990년까지 3년동안 1인당 국민총생산 증가율은 1.6배였으나 총혼례비용의 증가율은 3배, 혼례비용은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당시 우리 사회의 혼례 병폐 현상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

1990년대의 총혼례비용과 1인당 국민총생산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1993년에는 9.7배, 1996년에는 7.5배로 나타나 1990년까지의 급격한 증가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1990년 이후 1인당 국민총생산의 증가율은 1.4배로 나타났으나, 총혼례비용은 1.3배와 1.2배 상승한데 그쳐 우리 나라 경제 성장속도가 혼례비용 상승 속도보다 급속히 변하였으나 혼례비용의 경우 1990년부터 1993년까지 1.5배 증가하여 1인당 국민총생산 증가율 1.4배를 상회하면서 혼례비용의 소비가 주택마련비용의 상승보다는 소비지향적인 형태로 변화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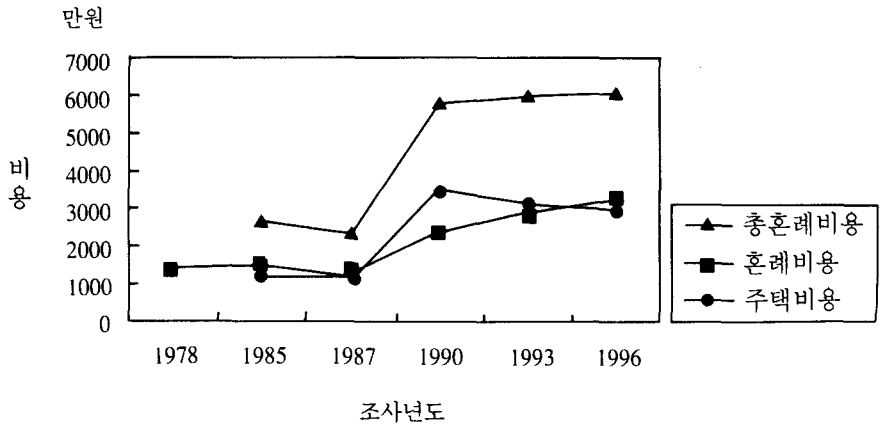
1987년에서 1993년까지 1인당 국민 총생산이 약 2.3배 증가하였는데 반해 같은 기간동안 혼례비용은

3.5배 증가하였다. 일본의 경우 1985년 687.7만엔, 1989년 688.7만엔, 1990년 699.7만엔인 것으로 나타나 5년에 약 2배정도의 증가에 그쳐 우리 나라와는 상당한 대조를 보였다(자료; 한국인의 소비생활, 1993). 또한 1인당 국민총생산을 감안하여 국가간 혼례비용을 비교 연구한 소비자보호원(1997)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을 상대비율 100으로 정하였을 때 미국의 4.8배, 영국의 3.2배, 일본의 3.3배, 대만의 3.7배 그리고 싱가포르의 7.3배로 나타나 우리의 혼례 문화의 문제점을 여실히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나라 혼례 비용이 실제 한국 경제의 성장률과는 관계없이 과시적이고 체면유지를 하기 위한 형태로 변화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4. 물가지수를 적용한 혼례비용

1997년 통계청에서 제시한 물가지수를 사용하여 1995년도 기준으로 물가를 조정하여 혼례비용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1980년대 후반 총혼례비용은 2,637만원과 2,319만원이 소비되었으나, 1990년에는 5,810만원으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1980년대는 주택비용으로 소요된 평균비용은 천만원대이지만 1990년대 들어서면서 부터



〈그림 2〉 물가지수를 적용한 혼례비용

는 3천만원대가 되면서 3배이상 급상승하여 총혼례비용의 상승비율과 동일하게 나타나 총혼례비용의 급격한 상승 원인이 주택비용의 상승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혼례비용의 경우에도 1978년에는 1,426만원이 소비되었으나 1985년에는 1,449만원이 그리고 1987년에는 1,241만원이 소비되어 약간 증가한 후 감소하였으나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부터 2,390만원, 2,887만원, 3,135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사실을 통하여 우리나라 혼례비용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재확인 할 수 있다.

5. 혼례비용과 도시 가계 월평균 소득과의 관계

혼례비용과 도시가계 월평균소득과의 관계는 〈표 4〉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985년 한 쌍의 부부가 신혼주거를 마련하고 혼인을 올리기 위하여 약 2년 10개월 동안 저축을 하여야 하며, 1987년에는 2년 1개월, 1990년에는 3년 8개월 동안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을 전부 저축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결국 1980년대에 한 쌍의 부부가 탄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평균 총혼례비용은 도시 가계의 평균 월평균소득을 약 3-4년 정도 저축하여야만 한다는 결론이다.

1993년에는 총혼례비용이 도시 가계 월평균소득의

36.5배에서 1996년에는 29.7배로 나타나 1993년이후 총혼례비용에 대한 월평균소득의 비율이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월평균소득이 1990년부터 1993년까지 평균 1.6배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총혼례비용은 1.3배, 혼례비용은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혼례비용에 대한 도시 근로자 가계의 월평균소득 비율이 감소한 원인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급격한 임금 인상에서 연유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1978년에 소비한 혼례비용이 월평균소득의 26.3배로 나타나 도시 근로자 가구의 총수입을 약 2년동안 저축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특이할 만한 사실은 남자의 혼례비용에 대한 도시 가계 월평균소득 비율이 여자의 혼례비용에 대한 도시 가계 월평균소득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자가 더 적은 혼례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신혼남녀가 분가하여 생활을 시작하기보다는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아 혼수장만 등을 적게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혼인을 하기 위해서 지출하여야 할 혼례비용이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약 20배와 14배였다. 그리고 1990년에는 혼례비용이 약 19배로 나타나, 1980년대에는 평균적으로 혼례비용이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소득을 약 1년 4개월 정도의 저축 기간이 필요하다.

〈표 4〉 혼례비용과 월평균 소득과의 관계

(단위 : 만원, %)

	1978	1985	1987	1990	1993	1996
월평균 소득	14.4	42.3	55.3	94.3	147.7	215.2
총혼례비용	-	1498	1397	4304	5389	6402
주택비용	-	675	650	2579	2789	3112
혼례비용	379	823	747	1769	2603	3290
총혼례비용 /월평균소득	-	35.4	25.3	45.6	36.5	29.7
주택비용 /월평균소득	-	16	11.8	27.4	18.9	14.5
남자총혼례비용 /월평균소득	-	24.7	17.4	-	-	18.9
여자총혼례비용 /월평균소득	-	10.7	7.9	-	-	10.9
혼례비용 /월평균소득	26.3	19.5	13.5	18.8	17.8	15.3
남자 혼례비용 /월평균소득	15.9	8.8	5.6	8.0	7.1	5.5
여자 혼례비용 /월평균소득	10.3	10.7	7.9	10.8	10.6	9.8

출처 : 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78, 1985, 1987, 1990, 1993, 1996년 자료임.

1990년대의 월평균소득과 혼례비용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한 쌍의 신혼부부가 탄생하기 위해서 1993년에는 1년 5개월, 1996년에는 1년 4개월 정도의 가계 소득을 저축하여야 하는 금액을 소비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하여야 할 사실은 경제가 성장할수록 남자와 여자의 혼례비용 부담 금액에 차이가 많아졌다는 사실이다. 즉 남자 혼례 비용을 월평균 소득으로 나타낸 비율이 1990년부터 8.0, 7.1, 5.5로 급격히 줄어들었으나, 여자의 경우는 10.8, 10.6, 9.8로 소폭 감소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혼례비용의 차이는 우리나라 신혼부부의 경우 대부분이 남자가 주택을 준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실제로 1996년 남자는 주택구입비로 2,884만원을 소비하였는데 반해 여자는 288만원만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1980년대 혼인한 부부는 평균 1,113만 원을 소비하였고, 1990년대에는 2,947만원을 소비하

여 약 2배 이상의 증가 비율을 나타내었다. 반면 혼례비용과 월평균소득과의 관계는 각각 1년 5개월과 1년 4개월로 나타나 별반 차이가 없었다. 그 주요 원인으로서는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방향이 바뀌어 경제 안정화, 자유화, 개방화 등을 통하여 과도한 정부 관여를 지양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도 완화하여 국내 경기 활성화에 힘썼으며, 1985년 미국의 경제 불황으로 인한 달러 가치 평가절하는 한국 경제가 급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에 따라 월평균소득도 년 15%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에 따른 혼례비용이 점차 안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혼인이란 특정 남녀의 영속적인 결합을 공개적으

로 인정받는 하나의 사회적인 형식으로, 한 사회의 기초적 구성 단위라 할 가족도 혼인을 통하여 형성된다. 또한 모든 사회가 저마다 다양한 형태로 혼인에 대한 법적 승인이나 규제를 설치하여 두고 있는 것은 혼인이 지니는 사회적 의미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혼인 제도는 그 사회가 지닌 특성을 반영하는 핵심적인 사회제도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오늘날의 과시적이고 과소비인 형태로 변질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된 혼례비용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혼례비용적 측면에서의 혼례문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총 혼례비용과 혼례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전통적으로 남자측 부담 요인인 주택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총혼례비용이 증가한 반면 혼례비용 중 남자 혼례비용의 비율은 감소하고 여자의 혼례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혼례비용과 1인당 국민 총생산과의 관계에서 보면, 우리 나라 혼례비용의 증가는 경제 성장 속도보다 더 급속히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1990년의 총혼례비용은 1인당 국민 총생산의 10.3배나 되었는데, 이는 주택 가격 상승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어 우리 나라 혼례비용은 경제 성장보다는 주택 가격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셋째,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1995년도 환율로 조정하여 혼례 비용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1990년을 기점으로 주택비용이 3배정도 증가하였고 혼례비용은 약 2배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넷째, 혼례비용과 도시 가계 월평균 소득과의 관계를 비교해보면 1990년을 기점으로 월평균 소득에 대한 혼례비용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임금 인상과 경제 안정에 따른 소득원의 증대 등으로 도시 가계의 월평균 소득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론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행한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혼례비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기존의 많은 연구 기관 및 학자들이 연구한 미시적인 측면에서의 혼례비용에 관한 조사에서도 신혼부부 한쌍을 대상으로 하는 Pair test를 실시한다면 현재 소비되고 있는 혼례비용의 평균을 추론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중류가정의 합리적인 혼례비용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IMF의 경제 상황에 적합한 건전한 혼례비용 모형을 정교화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겠다.

【참 고 문 헌】

- 1) 고광림(1990). 한국의 혼인연구. 서울 : 교서관.
- 2) 국은경제연구소(1993). 한국인의 소비생활. 서울 : 국은경제연구소.
- 3) 김모란(1994). 한국사회의 혼인거래관행에 대한 연구. 이대 박사학위논문.
- 4) 김분옥(1970. 10). 너무 벽찬 결혼비용. 여성동아.
- 5) 김종오(1981). 한국의 혼속연구. 서울 : 대성문화사.
- 6) 김진구 · 장유경 · 임정빈(1992). 개화기 한국인의 가정생활양식에 관한 연구 I. 한국생활과학연구소(한양대학교편) 제 10호, 339-445.
- 7) 류재술(1992). 80년대말 도시근로자 가구의 과소비행위와 그 성격에 관한 연구; 특히 80년대말 과소비적 특성을 중심으로. 소비자학 연구 3(2).
- 8) 박민자(1991). 도시 중간계층의 혼인거래관행에 관한 연구. 서울 : 또 하나의 문화.
- 9) 박숙자(1991). 도시 저소득층의 혼인양태. 서울 : 또 하나의 문화.
- 10) 박혜인(1987). 한국 전통혼례의 가족사적 고찰.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11) _____ (1991). 한국 전통혼례의 연속과 단절. 서울 : 또 하나의 문화.
- 12) 서병숙외(1997). 오늘의 혼례문화 그 진단과 방향 모색. 혼례관행에 관한 의식조사, 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 자료집, 17-60.
- 13) 선진영(1997). 가계의 자녀 결혼비용 마련대책과

- 결혼비용 분석. 이대 석사학위논문.
- 14) 성영신(1998).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건전소비전략. 한국인의 가치관과 과소비 행동, 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 자료집, 15-31.
 - 15) 이정우 외(1997). 생활예론. 서울 :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 16) 이현송·배화옥(1996). 혼례문화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7) 장하경(1996). 한국 사회변동에 따른 혼례관행의 변화. 한국가정관리학 회지 14(1), 147-161.
 - 18) 장병인(1993). 조선초기 혼인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19) 저축추진중앙위원회(1978). 혼인비용 실태.
 - 20) _____ (1985). 혼인비용 지출에 관한 실태 및 의식조사.
 - 21) _____ (1978). 혼인비용 실태.
 - 22) _____ (1990). 혼인비용 실태 및 의식조사.
 - 23) _____ (1993). 결혼비용 지출실태 및 의식조사.
 - 24) _____ (1996). 결혼비용 지출실태 및 의식조사.
 - 25) 전국주부교실중앙회(1990). 건전소비생활실천을 위한 세미나. 혼수용품 및 혼수비용에 관한 소비자 실태조사.
 - 26) 정용선외(1995). 혼수의 사회적 의미 및 혼수가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 사회 교환 이론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33(6), 115-135.
 - 27) 최경숙(1995). 결혼 의례절차와 물질적 재화 교환의 관행에 대한 연구. 이대 석사학위논문.
 - 28) 통계청(1997). 한국주요경제지표. 통계청.
 - 29) 한국소비자보호원(1990). 혼수실태조사 결과.
 - 30) _____ (1997). 우리나라 혼례소비문화의 문제와 건전화방안.
 - 31) 황경애(1994). 혼례행례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박사학위논문.
 - 32) Ellen M. Harbert; Barbara H. Vinick; David J. Ekerdt(1992). *Analyzing popular literature: Emergent themes on Marriage and Retirement*. SAGE, publications, 263-278.